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을 맞이한 산과 들에는 갖가지 색깔을 뽐내는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화사한 꽃으로 피어나 온 세상을 물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려초조대장경 조성 천 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께 오윤희선생의 역작 『대장경, 천 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과 백성호기자의 『현문우답』을 보내드립니다.

오윤희 선생은 대장경을 일러 “아시아 대륙을 망라하던 기억의 바다”라고 합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해인사 장경각에 모셔진 과거의 문화재로 보호를 받으며 관람의 대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되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도 『대장경, 천 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을 읽으며 과거 2,500년 아시아 대륙의 역사를 더듬어보는 기억 여행을 떠나보시길 기대합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현문우답』의 저자 백성호기자는 깊은 사색에 바탕을 둔 맛 나는 글을 써오면서 필명을 떨치고 있는 종교전문 기자입니다. 《중앙일보》에 연재되는 그의 글을 읽다보면 때로는 가슴을 탁 치며 동감하기도 하고,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일침으로 정신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저자는 겸손하게 ‘현문우답’이라고 하였지만, 책 안에 담긴 질문과 답이 모두 세상에 던지는 큰 화두와 다름없으니 ‘현문현답(賢問賢答)’이라 할 만합니다.

이번에 보내드리는 책 두 권이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지혜를 깊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5년 5월 부처님 오신 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